

감사하는 삶을 위해

정 속 자
본회 제2부회장

사 랑하는 회원여러분!
풍요롭고 아름다운 계절에 영·육간으로 건강하십니까?

11월 위령성월에 우리와 사랑을 함께 나누고 떠나가신 호스피스 대상자들을 위해 기도해 봅니다.

호스피스활동을 하다보면 말기암 환자들이 고통스럽고 힘든 과정에서도 잘 정리하고 평화롭고 존엄한 임종을 맞이하는 사람들을 대할 때 감사기도가 저절로 나오곤 합니다. 그들에게서 오늘날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하며 그분의 향기를 느낍니다.

우리는 평소 쉬운 것을 원하고 편하기를 원하고 그저 행복하기만을 원하는 윈편 바다에만 그물을 칠 것이 아니라 가난과 십자가, 고통이 있는 오른쪽 바다에 그물을 쳐야 합니다. 거기에 보물이 숨어 있습니다. 하느님은 우리에게 보물을 많이 숨겨 주셨는데 상상할 수도 없는 데에 숨겨 주셨습니다. 복받을 사람은 주변에 십자가가 있고, 보물이 숨어 있는 곳이 바로 그 십자가입니다. 그 보물은 눈물, 아픔, 고통으로 포장되어 있습니다.

하느님께서서는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가 아니라 다른 쪽으로 사랑을 주십니다. 내가 청하지도 않았는데 고통, 상처 십자가가 나에게 오는 경우가 있지요.

여기엔 특별한 선물이 있습니다. 오른쪽 바다를 밟시다. 고통을 짊어지고 있는 자체가 큰 축복입니다.

성모마리아가 받은 축복은 고달픔과 고통 그 자체였습니다.

처녀가 임신, 마구간에서의 분만, 30대에 과부 등



성모님의 오른편 바다의 축복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웃는 것도 소중하지만 우는 것이 더 소중할 수도 있습니다.

하느님은 우리를 공연히 찌르거나 고통을 주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은혜에 눈을 떠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놀라운 선물이 있습니다. 눈만 뜨면 은혜 아닌 것이 없고 마음만 열면 모든 것이 은총입니다.

지성도 중요하지만 깨닫고 느끼는 감성이 중요합니다. 뜨거운 감동이나 체험이 없이는 오래 믿는 것은 중요하지 않고 하루를 살아도 뜨거운 감동이 있는 생활이 중요합니다.

하느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정열적인 사랑을 하며, 감사하는 삶을 위해 우리는 하느님의 은혜에 눈을 뜨는 것이 중요합니다.

호스피스 활동을 하면서 만나는 환자와 가족들이 겪고 있는 고통이 곧 은총이며, 그들이 어떤 처지에서든지 감사할 수 있는 생활할 수 있도록 우리는 정성을 쏟아야겠으며, 하느님 앞에 더 낮아지고 겸손해져서 우리가 하는 값진 일들이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감사하면 할수록 감사할 일이 생긴다고 합니다.

일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건강함에 감사하고, 봉사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사랑할 수 있음에 감사하면서...

곳곳에서 묵묵히 호스피스 활동하시는 여러 회원님들께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어 영·육간의 건강과 행복한 삶을 누리시길 빕니다.